

연중 제23주일

기도서 P. 430 B해

제1독서(이 사 35, 4-7)
 제2독서(야 고 2, 1-5)
 복 음(마 르 7, 31-37)

숲정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김 봉 희**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동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02935)

강론



지극히 거룩한 罪人

김 한 철 신부

유대 나라 법에 의하면 大罪人이라야 十字架 형틀에 의한 사형을 시켰다고 한다. 이는 성서가 입증하는 바이고 또 예수님께서 극죄인의 취급을 받아 십자가에 의한 처형을 받았다는 사실은 天下가 다 아는 바이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인 유대인들에게 가한 처사는 36년간 일본 정치하에 있었던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면 가이 짐작할만하다. 자유 인권은 물론 사유 재산권마저 수탈당했으니 말이다.

이런 시국에 그리스도께서는 민심을 선동하고 국가의 변란을 획책했다는 죄목으로 국사법의 취급을 받아 법정에서 게 되었다. 그 재판과정을 마태오복음 대장에서 보면 꽤 흥미로운 대가 있다.

재판관 빌라도는 먼저 자기 아내로부터 이런 전갈을 받았다.

“당신은 그 무죄한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마시오”

재판관은 묘책을 찾았다. 바람바라는 이름난 죄인 하나를 예수 앞에 세워놓고 “누구를 살려 줄거냐” 하고 민심의 의견을 떠보려 했는데, 군중은 소리를 쳤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아니 예수는 너희들의 동족이 아닌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지겠오”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는 아부하는 동족들의 편동에 의하여 십자가 형틀에 의하여 처형당하는 大罪人이 되고 말았다.

이제는 오원춘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도 않다. 우리는 오원춘 형제가 피한에 의하여 납치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된다. 그보다 더 엄청난 사건은 이 사실을 조작한 내용을 보도기관을 종동원하여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국민을 우롱했고, 교회에 대한 의혹을 갖게한 사실에 대해서 더욱 경악을 금할 길 없다.

정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으라 웨치는 동족들의 아침소리를 알아들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정부가 진리를 생명으로 하는 교회의 말은 거짓으로 믿고, 정부에 아첨하려는 사람들의 말은 진리로 받아드린다면 이로 말미암아 국민총화에 끼치는 영향은 지극히 무서운 독버섯처럼 번져가고 있음을 우리 정부가 꼭 알아 주었으면 좋겠다.

<팔마 천주교회 주임신부>



신앙인의 참 몸짓

—피의 계절에

“천주를 믿지 않겠다”는 이 한마디를 거부함으로써 후려치는 때 아래 풀잎처럼 휘날려진 목숨들, 십자가에 매달려 짐승처럼 굴리다가 땅나니들의 회롱하는 칼아래 떨어지는 장한 목숨들, 이것은 한갓 악몽속에 겪는 하룻밤의 꿈은 아니요, 더구나 소위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것을 지향하는 현대인들에게 입에 올리기도 끔찍한 비인간적인 정상이 아닐 수 없다.

“지식은 고뇌를 통해 온다”는 말이 있다. 위대한 신앙이 한 민족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아직은 암중모색(暗中摸索)속에서 민중이 고뇌의 몸부림을 치지 않을 수 없다면 과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신앙인으로서의 고뇌—

오늘의 교회는 천주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른 박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위한 활동을 하느냐, 또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 박해가 가해지고 있다. 따라서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불의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말할 줄 알며 옳은 일을 하는것만이 순교자의 정신에 따라 주님을 따르는 길일 것이다.

비록 모든 이가 순교에 도달할 수는 없을망정 오늘에 사는 우리들은 양심을 거슬러 행동하지 말아야 하는 내적, 현실적 과제속에서 순교의 가능성에 의한 끊임없는 과정을 살아갈진대 순교자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피의 계절」—순교 복자성월을 맞이하여 앙드레 라리보 주교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교우라고 다 순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우면 누구나 신앙을 배반하기보다는 차라리 자기의 피를 마지막 한방울까지 흘릴 마음이 있어야 한다”

숲정이 산책





교회는 정치에 관여해야 하는가?

Fernando Ariztia

우리는 때때로 선의의 백성들이 요즈음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싫어진다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듣는다. 이 문제는 한 마디로 정리하기에는 지극히 복잡하고 벨리케이트한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그러기에 더욱 명확한 분석과 해석이 필요하다.

어떤 이들은 교회가 영적인 것만에 관여하는 것을 원한다. 즉, 하느님과 영혼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인류 역사를 통하여 여러가지 사회체제는 자신의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소리를 잠잠하게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여왔다. 로마제국, 나찌독일, 그밖의 파시즘 국가가 한결같이 그러한 노력을 해왔다. 오늘날에 와서 소련의 제국주의적 체제에 이와 같은 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다.

만일 교회의 포교사업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항상 자중과 포기만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교회를 붙들고 탈선 행위를 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나 그러한 교회는 백성들을 위해서는 진실로 아편과 같은 존재 밖에 되지 않으리라. 즉 교회가 백성들로 하여금 보다 큰 평화와 진리와 정의의 이룩하기 위해 스스로 변화를 추구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보다 오히려 그들을 조용하게만 만드는 데 힘쓴다면 이는 아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형제다울게 살아가며,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고 살 수 있는 세상을 건설해 나가도록 인간을 해방시키는 교회여야 한다. 인간을 해방시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해방이라는 것은 억압의 반대 행위이다. 오늘날에 있어서 인간을 억압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둘러보면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빛이 진고통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전체의 구조와 우리 자신의 내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죄가 팽배하고 있다.

우리 자신의 내부에 있는 죄는 거짓, 증오, 분열이다. 또 침묵중에 저질러지고 있는 수많은 낙태행위,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도 모른척하는 행위가 그러하다. 교

회가 이러한 것들만 지적하고 비판한다면 아무도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고 있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죄는 우리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에도 있다. 즉 사회 전체가 형제애를 증진시키는 구조가 되어 있지 못하고 어느 특정계급의 사람들만의 이익을 위하는 조직이 되어버린 경우이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이러한 예가 비일비재하다. 교회가 이러한 죄를 지적하고 사회에 이러한 죄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회적·조직적 범죄사태가 발생하고있고 소수의 그루우프는 이러한 사회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려 할 때,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된다.

누가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들에게 음식을 줄 때 아무도 이를 정치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어린이들이 왜 영양실조에 되었는가 하는 이유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려 할 때, 교회는 그 이상 전진 금지의 명령을 받게 된다. 교회가 고통받고 있는 자에게 그 고통을 감수하라고 가르치고 사랑을 가리키는 이상 문제는 없다.

그러나 교회가 사회조직 안에 내포되어 있는 죄와 억압을 지적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형제들이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려 할 때, 교회는 정치를 한다고 한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교회의 역할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인간이 일치할 수 있는 진리의 통로가 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억압당하는 수많은 형제들을 대변하여 힘과 사랑을 가지고 불의한 부정을 고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작업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왜 인권 문제나 노동자의 권익 문제, 또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해 활가알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이것이 정말로 정치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구속(救贖)하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환기시키는 일일까?

(질리 코피아모 교구 주교)

◎ 오 원춘 사건 공판 방청기

9월 4일 오전 10시부터 공판정은 600여명의 신부, 수녀, 신자들로 입주의 여지가 없는 가운데 4시간동안 심리가 계속됐다.

이미 <메스롭>을 통해 「사건 여론 재판」을 받았던 오 원춘이 또 장장 2시간 반에 걸친 검사의 호되고 강압적인 신문(취조?)에 맥없이 「예, 예」를 연발, 공포에 질린채 눈물을 흘리며 「공소 사실」을 모두 시인해 버릴때 정말 안타깝기보다 차라리 처절한 죽음을 보는듯 했다.

그러나 끝이 시작될 변호인들의 몇마디 「반대신문」이 있자 다시 장내는 숨은 분노, 울분으로 온 가슴을 떨게 해버렸다. 오형제는 계속 「위협과 협박을 받고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두려움에 말문을 쉬 터뜨리지 못하고 있었다. 더우기나 검찰 취조용지에 몰래 써 내보낸 “폭력에 의해 허위조작을 자백”하고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쪽지」(두 주교님께 보낸 허위 자백내용 편지 발송 이틀후에 쓴 것)가 제시, 다시 확인되자 이제껏 구

민 「관의 조작극」이 또한번 법정에서 폭로되고 말았다. 슬프도다, 관의 파렴치한 작태여! 제발, 제발 힘없는 한 인간의 생명 짓밟아 꺾는 무도함을 이제라도 빨리 삼가해 주기만을... 온 국민의 분노가 터지기 전에—

(요한記)

□ 문학강좌 □

現代 韓國 作家들의 問題意識

강사...구 상 선생
(중앙대 교수, 시인)

□ 때...9월 15일(토) 오후 7시 반

□ 곳...전주 가톨릭센터 강당



알 립 니 다

최근 교회 내외에 크게 문제되어 있는 안동교구 가톨릭 농민회원 오원춘씨에 관한 납치, 폭행, 구속과 허위조작, 유포 및 계속되는 오도, 그리고 성직자들에 대한 재 구속 사태와 일련의 교회활동 탄압행위 등으로 새롭게 직면한 종교박해의 위기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의 신앙과 교권을 수호하고, 짓밟히는 인권의 회복과 자유 평화 정의 구현을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우리의 진실과 태도를 밝힐 「대 기도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교구 정의평화 위원회)

교권(敎權)과 인권수호(人權守護)를 위한 대 기도회

- 일 시 : 1979년 9월 10일(월) 오후 6~9시
 장 소 : 전주 진동성당 광장
 주 레 : 김 재 덕 주교님 및 전국 사제단 공동집전
 행 사 : 1부-정의평화를 위한 기원미사(주교님 특별강론)
 2부: 진상보고 및 교회 태도 표명
 3부: 희생의 길(고통에의 동참)

교권과 인권수호를 위한 기도회 군산 팔마성당에서 성황리에 마쳐...

최근 교회 내외에 크게 문제되고 있는 안동 가톨릭 농민회원 오원춘씨 납치, 폭행, 구속사건에 관한, 현 사태의 진상과 교회태도를 표명하는 기도회가 군산 팔마성당에서 많은 신자들의 성원아래 무사히 마쳤다. 오원춘 사건의 진상과 교회 태도를 밝히는 특별강론(이수현 신부)에 이어 사건의 전후배경과 진행과정을 소상하게 밝히므로써 자리에 참석한 40여명의 사제와 700여명의 신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일으켜 주었다.

◀ 긴급공고 ▶ 정의·평화를 위한 모금

우리의 지속적인 사회정의 구현 활동과 민주·인권 회복 운동을 위하고 또 구속된 성직자, 농민, 민주인사, 양심수인들을 돕기 위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뜻있는 분들의 값진 성금과 협조를 바랍니다. 숨은 독지가를... 직접 또는 본당 신부님을 통해 교구청이나 교구 정의평화 위원회에 보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교구 정평위-

□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선사합니다□

송 옥 의 상 실

최 춘 자(로사리아)

(이 시 계 점 열)

전화 ☎ 6219

직 원 채 용 공 고

1. 모집부문 및 자격

- 1) 남자: ○ 명
- 2) 자격
 - ① 만 20세이상~30세미만
 - ② 고졸이상 졸업자(주산및 부기 3급이상 자격소지자환영)
 - ③ 병역을 필한자 및 면제자

2. 제출서류

- ① 이력서 1통 명함판사진 2매
- ② 주민등록등본 1통
- ③ 병적확인서 1통
-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 ⑤ 신원증명서 1통
- ⑥ 건강진단서 1통

3. 접수마감: 79년 9월 16일 17시

4. 전형방법: 필기시험 및 면접
5. 전형일자: 79년 9월 17일 15시
6. 접수처: 당조합 총무과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직접 문의 바람

노 송 신 용 협 동 조 합

전화: ☎ 4834 번

결 (축) 혼

방준철 씨 장남 성 일(가별)
 이종선 씨 차녀 정 숙(누갈다)
 일시: 79년 9월 16일 12시
 장소: 전주 진동 전주교회
 주례: 김병영(베드로) 신부

□ 개업안내

대중식사 연회석 완비

흥 부 식 당

대진실험 맞은편
 우리미장원 옆
 전주시 진동 2가 125-8
 주. 조 모니카

MCGREGOR



맥그리거

삼성물산전주대리점
 ※성인·아동용의류

전주시 중앙동 3가
 삼화약국 옆

전화 ☎ 4451번
 유 율리야나

□ 픽업차로 신속배달, 가정방문으로 점검, 교우님들 자주 찾아주세요

신진프로판까스상사

대표 최 안드레아
 전주시 진북동 천변도로
 전화 ☎ 5448 · ☎ 1071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제 4차 순교자 현양대회 9월 30일(일)로 연기...착오였으시기 바랍니다.
 ① 글짓기 원고마감...9월 15일(토)까지, 교구청내 평협 사무국으로
 ② 그리기 대회...9월 9일(일), 각 분당에서. 소재-순교정신을 기리는 내용, 대상-국민학생 도화지(8절)
 ③ 성가 경연대회 결선...현양대회 당일
 ④ 음반대회 결선...9월 9일(일) 오전 10시, 가톨릭센터 강당에서,
 (원고제출자만 참가할 수 있음, 기일 엄수 바람)
 ※ 자세한 내용은 순경이 제347호(7월 15일자) 참조...남자만 이와 같이 변경됨.
 2. 베델성서 연구회 모임 연기...기도회관계로 10일에 예정되었던 모임을 11일로 연기하오니 착오없이시길...
 3. 문화강좌...9월 15일 오후 7시30분, 가톨릭센터 강당
 주제-현대 한국 작가들의 문제의식, 강사-구 상 선생님
 4. 중·고등학생 교리 경시대회...9월 16(일) 오후 2시, 법위-루카복음, 주요기도문, 가톨릭 교리서 18~42과
 5. 전교사 연수회...9월 20일(목) 오후 2시~22일 오후 2시, 가톨릭센터
 6. 여자 쟀 모임...9월 9일(일) 오후 2시, 성심여교 강당에서
 7. 9월 10일 전주시내 분당 저녁미사는 모두 「기도회 미사」로 대체합니다
 8. 다음 성가는 현양대회때 모든 교구가 제창하오니. 분당에서는 시간나는데로 연습 바랍니다.
 입당노래-공동체(275), 봉헌-새 전례(53), 퇴장노래-정선(127)
 정의 평화를 위한 성금...전동 익명(2만원), 합월 이병각(5천원), 월명동분당(40,520원), 창인동 익명(5천원)
 수재민을 위한 성금...분당 인성회로 많은 후원 바랍니다

(중앙)

주임 신부 서 웅 복
 보좌 신부 오 수 해
 보좌 신부 정 태 현
 사도 회장 이 북 식

전화 ③3651
 ③3874

금에 협조바랍니다
 지난주 봉헌금: 194,020원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활인규

- 환영: 왕수해 신부님
 - 학생회 월례회: 9일(일) 오전 10시 강당
 - 꾸리아: 9일(일) 오후 2시
 - 학생교리: 11일(화)~14일(금) 오후 8시~9시
 - 환자 영성체: 12일(수) 오후 2시
 - 간중리공소 낙성식: 15일(토) 오후 3시(주교님 집전)
 - 성지순례(서울 절두산)
 17일(월) 오전 7시 출발
 회비: 5,000원(점심 각자 지참)
 신청마감: 14일(금)까지
 - 수재민들을 돕읍시다
 - 중앙청년 신심단체 체육대회: 9월 16일(일)
 장소: 해성학교 시간-오전 8시
- 지난주 봉헌금: 264,891원

(성모회)

- 선교주일: 10시미사 후
 - 반장님 회의: 10시미사 후
 - 수요기도회: 12일 8시30분
 - 첫영성체자 신청 바람
 - 반사회: 5만(11일), 6만(12일 분당에서), 7만(13일) 8만(14일)
 - 예비자 교리: 10시미사 후
 - 수재민을 위한 특별헌금에 협조합니다
 의연금 전달-마음리공소 한덕환(25,000원), 김은순(5,000원), 상관 대성리 차상열(10,000원)
- 지난주 봉헌금: 85,730원

(노송동)

주임 신부 김 정 원
 보좌 신부 나 공 역
 사도 회장 김 성 록

전화 ③7032

(순정미)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 축! 견진성사: 오늘 견진성사를 받으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항상 성령안에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 신우회 월례회: 오늘 저녁미사 후
 - 공소미사 안내: 신원리공소(오후 3시 반)
- 지난주 봉헌금: 99,211원

(성지순례)

- 성모회 월례회: 9월 16일 공식미사 후
 - 중고생 교리경시대회: 9월 16일 오후 2시 분당에서 준비교리 9월 10일~15일까지 저녁 7시
 - 토요일 특별 학생미사: 7시30분-7시로(미사후교리)
 - 성지순례 안내
 ① 장소-비룡면 천호동 치명자 묘지
 ② 일시-9월 23일 오전 8시 출발예정
 ③ 왕복 차비-1,000원, 9월 16일까지 선착순 접수
 ④ 당일 중식은 분당 요안에서 준비합니다
 - 예비자 교리안내: 화~수요일 아침 10시 수요일 저녁 7시30분, 주일 공식미사 후 11시
 - 지난주 신축기금 내주신분: 진북동 홍정례(3만원)
- 지난주 봉헌금: 144,725원

(덕진)

주임 신부 서 석 기
 보좌 신부 전 중 복
 사도 회장 유 제 상

전화 ③2182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병엽
 보좌 신부 김기중
 사도 회장 유석

- 사도회 삼일위원회: 9월 15일 저녁 8시 구역장님, 사도회임원, 공소회장님 꼭 참석하세요
 안건: 축성 2주년 기념행사 건
 - 분당 견진성사: 10월 7일 견진성사 받으실분은 사무실에서 신청서 받아가세요
 - 화요기도회: 9월 14일 저녁 많은 참석 바람
 -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11시, 수요일 저녁 8시
 - 봉헌금은 자기 봉투를 사용하시고
 밀린 봉헌금은 빨리 납부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26,375원 교무금: 125,000원

- 자모회: 공식미사 후
 - 장우회: 저녁미사 후
 - 성화회: 공식미사 후
 - 성가정회: 10일(월) 오후 2시
 - 8월말 결산: 총수입-13,881,091원
 총지출-13,853,877원 잔액-27,215원
- 지난주 봉헌금: 307,470원

(복자)

주임 신부 김 종택
 보좌 신부 박성호
 사도 회장 조성훈

전화 ③5238

(파티마)

전화 ③0915 주임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현

- 신우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김국원 형제백
- 견진성사(9월 16일) 3일~15일까지 저녁미사 후 견진교리 실시(주일과 화요일만 제외)
 견진비용, 주교님, 미사예물, 교재비, 접대비, 꽃대성인 2,000원 이상, 학생 1,000원 이상
- 복자성당 주보축일 행사
 9월 26일(수) 미사 저녁 7시 주교님 집전,
 유공자 7명 시상
- 주일학교: 매주일 오후 2시, 미사 3시
- 성가연습: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30분
- 봉헌금 미수 정리하고 매주 빠지지 말고 봉헌합시다
- 인성회에서는 9월 9일과 16일 수재민을 위한 특별헌

- 김영일(아우구스띠노) 신부님께서 우리 분당으로 오셨습니다. 한달이 넘도록 분당신부님이 계시지 않았던 관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신부님과 유종우 계신 문정현 신부님께 기도합시다
 - 내일(10일 오후 6시) 전동성당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합시다
 - 8월말 결산: 수입누계-5,199,638원 지출누계-5,178,570원 잔액-21,068원
- 지난주 봉헌금: 58,280원